



정계개편 ‘꿈틀’ ... 무소속 원 지사에 ‘이목’

총선 8개월 앞뒤 정치권 요동 속 야당 잇단 ‘러브콜’ 제3지대 신당·보수 대통합 등 시나리오 중심에 거론

2020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정계개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야당 러브콜을 잇따라 받아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중앙정치권의 러브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원지사가 민선7기이자 재선 임기를 이제 겨우 1년 채운 데다, 제2공항 건설사업,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도내 현안과 갈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도정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섞여있는 것

로 풀이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지난 16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와 의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원 지사에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를 하나로 만들고 분발하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와 함께 내도한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도 “(원 지사가) 제주 행정을 잘 하고 계시지만 중앙에서도 나라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명확하게 제안한 것

은 아니지만, 정계에서는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 속 정계 개편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 지사는 현재 당적이 없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다.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도 지난달 11일 개인 SNS를 통해 ‘천안함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다음 주자로 원 지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게다가 원 지사는 최근 민주평화당 분당 후 ‘제3지대 신당’ ‘보수 대통합’ 등 정치권 시나리오의 중심에 이름이 지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지사도 개인 SNS를 통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야당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원 지사는 정치적 행보에 대해 “도민과의 약속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일축해왔지만, 야권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지난 선거에서 제기됐던 ‘서울 바라기’라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편으로는 야권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입당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야당 관계자는 “도내 정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 지사 생각”이라면서 “입당이나 신당 창당 등은 제주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원 지사의 말을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지하수 관리구역 지정, 해 넘기나

제주도, 추가지정 예고에도 대상지 내 삼다수공장 놓고 법제처 해석 늦어지며 지연

신규 개발 허용 여부 관건도 “올해안 고시 어려울 듯”

제주 지하수 보존·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대상 구역 내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삼다수 생산공장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제출이 늦어지면서 목표 고시 기간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26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추가 지정 예정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중산간 구역 약 450㎢와 고산·무릉 일부 구역 22㎢ 등 총 472㎢으로, 제주도내 면적의 25.5% 규모다.

현재 제주도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2003년 6월부터 지하수 과대개발구역 4곳 등 약 160㎢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추가 지정될 경우 도내 면적의 34.0%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16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9월 회기 때 제주도회의의 동의를 받고 올해 내 고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JPDC의 삼다수 공장에 대한 특별법 법령해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시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을 보면, 공공기업의 경우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인 JPDC는 예외 대상이다. 반면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 지하수 신규 허가 제한되는 등 보존·보호 조치가 이뤄지는데, 공공기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 법령해석에 따라 JPDC 신규 개발사업 추진의 희비가 갈리게 되는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4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하고, 7월 초쯤 답변을 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 지하수 고갈과 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보존·보호 조치가 시급한 만큼 구역 지정을 위한 조속한 행정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정상 3개월 소요되지만, 법제처에 의뢰 건들이 밀려있어 빠른 처리가 어려울 듯하다”며 “당초 7월 초에 답변을 받기로 했다가 ‘올해 내’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 답변을 받은 후 도의회 등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고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제처의 답변을 받으면 조속히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꽃굴, 9월 초에 수확하세요” 농촌진흥청, 시기 연구결과 해거리 피해 없고 수량 최대

농촌진흥청은 꽃굴(청과)은 꽃이 핀 뒤 120일 후인 9월 초 수확하면 해거리 피해 없이 수량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꽃굴은 다 익지 않은 굴을 뜻하며, 향염·향산화 등 기능성이 밝혀지면서 소비도 늘고 있다. 그러나 갑골은 수확 시기별 수량 차이도 크고 이듬해 꽃이 피지 않는 해거리가 나타나기도 해 생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노지 온주밀감의 꽃 피는 시기에 맞는 수확 시기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꽃굴 수확에 가장 알맞은 시기는 꽃이 70~80% 핀 만개기 기준, 120일로 나타났다. 5월 5~10일경 꽃이 핀 나무는 120일이 되는 9월 5~10일경이 수확에 알맞다. 이때 수확하면 만개 후 40~100일경 수확한 것보다 수량이 많았다. 해거리 없이 다음 해 꽃과 잎의 비율(화엽비)이 정상 수준인 1.0~1.2로 나타나 해거리가 발생한 대조구 화엽비(0.05~0.09)보다 눈에 띄게 많았다.

연구진이 2년에 걸쳐 생산 적기에 맞춰 꽃굴을 수확한 결과 나무 1그루 당 수확량은 47.0~63.1kg이었고 이듬해 꽃과 잎의 비율은 1.0~1.6까지 높아졌다. 반면 해거리가 발생한 대조구의 수확량은 7.3~11.9kg으로 수량 변동 폭이 매우 컸다. 조성윤기자



지난 16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도와 바른미래당 중앙당 지도부와 의 정책협의회에서 손학규 당 대표와 원희룡 지사(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네 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3특별법 국회 통과 등 쟁길 것”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도와 정책협의회서 강조 2공항 등 현안 지원 피력

바른미래당이 제주특별법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제주도 현안 해결에 적극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혀 향후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현안 관련 실국장과 바른미

래당 중앙당 지도부와 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와 문병호 최고위원, 채이배 정책위원장, 이행정 사무부총장, 정찬택 조직위원장, 장진영 비서실장, 홍경준 연구원장, 이종철 대변인 등 주요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제주도당에선 장성철 도당위원장, 강충룡·한영진 도의원 등이 자리했다.

제주도는 이날 자리에서 제주특별법과 4·3특별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협조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등 2020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주요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협

조를 요청했다.

손학규 당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원지사와 제주도와 의 인연을 강조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4·3특별법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제주도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의 필요성과 현재 위치를 선호한다는 응답을 받았다”며 “(신항만 등) 국비 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채이배 정책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환경과 개발에 대한 갈등과 이견이 있지만 충분히 조화롭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소진기자

비과세로 5116㎡ 규모 매입 강성민·이승아 “의도 궁극... 도에 매각해 공익 활용을”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반 아베를 비롯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분위기 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

유의 대규모 부동산(5116㎡)이 있다”며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아 왔다. 2000년 6월 매입 이후 그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그 의도가 궁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부동산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상윤기자

더 늦기전에 도전하세요!

학 생 모 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서귀포오석학교**에서는 2019/20학년도 학사 일정 시작에 맞춰 다음과 같이 각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다 음 -

○ 모집과정 및 인원						
과정	문해교육과정(초등문해, 중등문해)					검정고시교육과정
초등문해	초등문해1	초등문해2	초등문해3	초등문해4	초등문해5	중등문해
모집인원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수업시간	10:00~12:00					19:00~21:55

○ 모집대상
성인, 어르신, 결혼이주여성, 학교 밖 청소년 등

○ 모집기간 : 8월 31일까지

○ 개 강 일 : 9월 2일(월)

○ 수업시간
- 오전 문해교육과정 : 오전 10:00~11:50(주 3회, 월·수·금)
- 오후 문해교육과정 : 오후 19:00~20:50(주 3회, 월·수·금)
- 중졸·고졸 검정과정 : 오후 19:00~21:55(주 3회, 월·수·금)

○ 수 업 료 : 전액 무료

○ 문 의
☎ 762-2487 (오전 10시후 통화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 43-2(서귀동, 서귀포소방서 부근)

어린 시절 배워야 하는 시기에 가정형편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쳐 정규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학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한글교교육에서부터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전해 보십시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서귀포오석학교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귀포시 -

서귀포오석학교
seogwipo.osuk.school
http://www.osuk.co.kr

분묘연고자를 찾습니다.

본 분묘 소재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531번지

본 분묘(쌍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분께서는 토지주나 인근 마을리사무소, 행정기관 (서귀포시청, 안덕면사무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0-8664-6567**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할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데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S보험사
정비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증

국대리점 | 연가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바른설치부터 A/S까지**
특별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뛰어난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